

광주 3곳... 시민 고민 들어주는 우편함 '나미야잡화점'

가슴 따뜻한 손편지 위로 고마워요 나미야 할아버지



광주에서 활동하는 '청년문화허브'가 유스퀘어문화관에 설치한 '나미야잡화점' 우편함.

하기시노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서 힌트
청년문화허브 작년 5월 유·스퀘어서 시작
대의동 학원가·전남대 도서관에 추가 설치
10대~40대 21명 고민 해결사 활동
“아티스트와 협업 관광자원 만들고 싶어”



광주 대의동 학원가(왼쪽)와 전남대학교의 '나미야잡화점' 우편함.

하기시노 게이코의 소설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을 읽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생각해 보게 된다. "내 주변에도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나미야잡화점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한다.

소설 속 낯은 나미야잡화점의 주인 나미야 할아버지는 동네 꼬마들의 고민을 해결해준다. 꼬마들이 가게 앞 우편함에 고민 편지를 넣어두면 할아버지는 답장을 써 우유상자에 담아 놓는 식이다. 세월이 흘러, 어리버리한 독자들이 잡화점에 숨어들고, 그들은 열띤 열거와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편지에 답장을 하게 된다.

광주에 고민 해결 우편함 '나미야 잡화점'이 문을 열었다. 아담한 우편함 속에는 다양한 사연을 담은 고민 편지들이 들어 있고, 편지를 읽은 '나미야 할아버지(들)'가 일일이 손편지로 답장을 쓴다. 어느 순간 우편함은 편지만 오고가는 공간을 넘어, 서로를 격려하고 정을 나누는 장소가 됐다.

'나미야잡화점'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들은 광주의 청년들이다. 늘 유쾌하고 재미있는 프로젝트를 구상하던 '청년문화허브' 회원들은 지난해 5월 소설 '나미야잡화점의 기적' 이야기를 하던 중 "그런 우체통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고, 이에 직접 기획해 보기로 했다.

초창기엔 유동인구가 많은 유·스퀘어문화관 사물함을 장기 렌탈했다. 누가 편지를 보낼까 반신반의했지만 편지들이 쌓이기 시작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될수만은 없다는 걸 알기에 재수를 할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야 할지 고민하는 편지, '재미없고 너무 진지한 사람들'이 사람들이 금방 질려하는 내 성격을 고치고 싶다'는 이야기, '어떻게 하면 자존감이 낮아질대로 낮아진 내 스스로를 좋아할 수 있을까' 묻는 편지, '재능기부만을 원하는 이들에게 실례가 되지 않고 거절하는 법'은 없는 지 조언을 구하는 편지 등등.

손으로 답장을 써주는 '나미야 할아버지'들은 자원봉사로 참여하고 있다. 현재 10대~4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 21명이 활동중이다. 고민 편지를 보냈다 나미야 할아버지가 된 이도 있다.

사실, 편지를 보낸 이들은 뚜렷한 '해결책'을 원하는 건 아니다. 대부분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고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가슴이 따뜻해진다고 말한다. '나미야 할아버지는 천사인 게 분명해!', '나미야 할배 만나 보고 싶어요' 답장을 받은 이들의 반응이다.

언제부턴가 나미야잡화점에서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졌다. 고민 편지 이외에도 "오늘도 서로 화이팅 하자", "오늘 여기 들르신 분들 힘내시라"는 응원 메시지를 담은 '포스트 잇'이 하나둘 붙기 시작했다. 박카스, 쥬스, 김, 빵, 라면, 3분 카레 등 따뜻한 마음이 담긴 소박한 물품을 놓고 가는 이들도 생겼다.

현재 나미야잡화점은 전남대 도서관과 대의



'나미야잡화점' 우편함에는 고민 편지 뿐 아니라 격려 메시지, 다양한 물품들도 놓여 있다.

동 학원가 등 모두 3곳에 설치돼 있다. 청년문화허브는 앞으로 지역 주민과 단체 등 다양한 커뮤니티가 나미야잡화점 프로젝트를 직접 진행하는 방향으로 사업 계획을 잡고 있다. 현재 광주 북구 YMCA와 경기도 시흥 등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편지를 보내 놀랐어요. 그분들이 거창한 답변, 완벽한 해결책을 원한다기 보다는 누군가 함께 고민해주고 있다는 데 위로를 받는 듯합니다. 광주 95개 행정동에 나미야잡화점이 하나씩 생겨 '주민 상담소' 역할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나미야잡화점 코디네이터를 양성하고, 우체통 디자인과 인쇄물 등을 총괄하면서 인프라를 만들 겁니다."

정두용 대표는 '나미야프로젝트'를 지역 관광자원으로도 만들고 싶다고 했다. 우선 예술가들과 협업해 개성 넘치는 우편함 제작을 시도해 볼 생각이 다. 지역 아티스트들과 함께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래서 소설을 읽은 이들이라면 누구는 찾아오고 싶은 '우편함'을 만드는 게 꿈이다. 현재 운영되는 우편함 제작비는 40만원 정도 소요됐다.

"소설책을 읽은 사람들은 모두 고민 우편함을 꿈꾸게 돼요. 광주 곳곳에 다양한 '나미야잡화점'이 생기고, 그 우편함을 찾아가는 순례 코스도 만들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스탬프를 찍어주기도 하고, 엽서 등 상품도 만들구요."

허브는 또 다른 '재미'이지만, 황당한 '꿈'도 꾸고 있다. 책을 펴낸 출판사를 통해 하기시노 게이코에게 직접 고민 편지를 보내 답장을 받는 이벤트다.

"당신의 책을 보고 대한민국 광주에서 이런 우편함을 운영중이라고 사연을 보내면 하기시노 게이코가 답을 해주지 않을까요?(웃음)" 문의 010-7422-272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자연과 인간의 '동행'... 임종두 개인전



◀'관음'

내달 1~30일 무등산 '커피북'

한국화가 임종두 작가가 광주시 동구 무등산 커피북에서 6월1일부터 30일까지 '동행'을 주제로 개인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 임 작가는 오방색으로 여성과 자연 아름다움을 표현한 '동행', '관음'시리즈 등 최근작 15점을 선보인다.

임 작가는 2000년대 중반부터 '자연이 된 사람'을 작품에 담아오고 있다. 작품 속 여인은 간결하면서도 강렬한 색채로 표현한 게 특징이다. 풍성하게 울린 머리카락은 꽃, 나뭇잎, 새 등 자연적 요소를 배치시켰다. 마치 이집트 옛 그림처럼 정면이 아닌 옆모습을 그리며 소통과 조화를 이야기한다. 작품 '동행'에서는

여인과 새, 물고기 등이 서로 바라보거나 같은 곳을 보고 있다. 여인과 동물은 자연과 교감을 꿈꾸는 인간상을 대변한다. '관음(관음)'은 현을 켜고 있는 여인을 묘사했다. 임 작가가 그린 여인들은 붉거나 노란 피부, 눈동자를 하고 있다. 배경과 대비되는 원색은 관객 시선을 여인 얼굴에 집중시킨다.

임씨는 전남대 예술대학과 중앙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서울 금호미술관, 예술의전당, 미국KM아트센터 등에서 개인전을 19회 개최했다. 대한민국 미술대전 대상(1992) 등을 수상했으며 현재 한국미협, 새벽회, 일레븐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문의 062-223-5947.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김환기 '무제3' 45억 6240만원 낙찰

홍콩 경매서...국내 작품 역대 세번째 높은 가격

신안 출신 수화 김환기(1913~1974) 그림이 홍콩 경매에서 국내 작가 작품 중 역대 3번째로 높은 가격에 낙찰됐다. 이로써 지금까지 국내의 경매에서 판매된 한국 작가 작품 중 최고가 1~3위를 모두 김환기 작품이 차지했다.

서울옥션이 29일 오후 6시(현지시간) 홍콩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진행된 제19회 홍콩 경매에서 김환기의 1971년 작 '무제 3-V-71 #203'이 45억6240만원(3천만 홍콩달러)에 낙찰됐다.

가로 152.2cm, 세로 215cm 크기의 대형 캔버스에 서로 다른 4가지 색깔과 기법을 담아낸 이 작품은 사전 추정가가 30억~40억원으로 나오면서 이번 경매에서 역대 최고가 기록을 경신할지에 관심이 모아졌다. 최고가 1위는 지난해 홍콩 경매에서 48억6750만원(3300만 홍콩달러)에 낙찰된 1970년 작품 '무제'다. 2



위 역시 김환기 1971년 작품 '19-VII-71 #203'로 47억2100만원(3100만 홍콩달러)이다. /연합뉴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명품 박물관 탄생!!
세계 70여개국에서 수집한 조각·장식 6,000여점 전시

아프리카 소나조각 앙코르 전시회
400여점 전시

세계 조각·장식 박물관
World Sculpture·Ornament Museum

☎(062) 222-0072, 226-5800 일요일 휴관
(구. 카톨릭센터 뒤 금남문선 1층)



담양메타세콰이아가로수길

여유, 낭만, 힐링